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전남, 전라선 고속철화 건의

호남·강원·충청 8개 시·도 국회서 '강호축' 토론회

국가균형발전위원장·국회의원·단체장 등 참석, 정부 전향적 자세 촉구

광주시 "미래핵심산업 육성" 전남도 "관광산업 전기 마련"... 지원 요청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7기 지역 최대 속원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선정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에너지 신산업, 인공지능 등 미래 주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남도는 수도권 유동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관광산업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들 사업을 추진 중이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강호축 국회 토론회'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토교통부 2차관, 호남·강원·충청 등이 포함된 '강호축' 지역 국회의원 11명, 8개 시·도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충북도가 강호축 프로젝트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김시곤 대한교통학회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일태 전남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 앞서 8개 시·도 단체장들은 각 지역의 속원사업에 대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이윤섭 광주시장의 공약인 빛그린산업단지, 에너지 밸리, 첨단 3지구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체 면적은 928만6000㎡에 달하며 광주형 일자리, 에너지 신산업, 인공지능 등 광주 미래 핵심산업들이 들어설 부지다. 시는 오는 9월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정을 요청하고, 12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대상지역 선정을 거쳐 2020년 상반기 부처 협의를 통해 공식 지정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지역산업의 비전을 체계화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안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전남도는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운영, 코레일 고속철도(KTX) 전라선 증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전철화 추진 등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기반시설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전라선은 전북 익산과 전남 여수를 잇는 185.7km의 노선으로, 현재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전철화돼 있는 전라선을 고속철이 다닐 수 있게 할 경우 30분 정도가 단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관광객의 전남도로의 유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조7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부선과 비교할 때 호남선, 전라선의 철도시설은 지나치게 낙후돼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강호축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호축'이란 경부축의 대립적인 개념으로, 호남·강원·충청 등 강호축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국토의 불균형적 개발과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의 개선은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연구용역 수행, 공동건의문 채택,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강호축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며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 중이다. 또 강호축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부터), 조현욱 인사수석, 강기정 정부수석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복도에서 얘기를 나누는 뒤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한미동맹 틈 벌리고 평화 물결 되돌리려는 시도 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주제

"트럼프와 한반도 평화 길 찾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불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일시적 어려움이 조성됐지만, 남북이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 북미 양국은 과거처럼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는 대화의 동력을 이룬

시일 내에 되살리기 위한 한미 간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남북이 함께 걷는 쉽지 않은 여정"이라며 "과거 70년간 성공하지 못한 길이라도, 우여곡절이 없고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워낙 많은 일이 있었기에 많은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질 정도지만, 지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았다"며 "지난 1년이 만든 놀라운 성과야말로 우리가 대화

를 계속해야 할 분명한 근거"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결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는) 국익과 한반도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길을 찾겠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의원 세비·해외출장 내역 누구나 확인한다

올 상반기부터 국회 홈페이지 공개

올 상반기 중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세비와 각종 지원 경비 내역, 해외출장 내역 등을 국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물론 의원실내에 나눠주는 각종 지원 경비,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내역, 정책용역 결과물과 정책자료집,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 현황 등 의원의 모든 입법 활동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게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산은 얼마를 쓰는지를 소상히 알리고 평가받게 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에 매달 또는 분기나 연 단위로 주기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홈페이지 작업을 마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중 공개를 완료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재검토해 공개 정보로 전환하고, 사전 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로 모두 17개 항목을 지정했다. 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해서는 ▲ 국회의원 수당 ▲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내역 ▲ 본회의·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가지다.

또 국회 조직·운영과 관련한 항목은 ▲ 국회인력 통계 ▲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 주요 계약 현황 ▲ 예산편성 현황 ▲ 국회 관용차량 현황 ▲ 공공요금 등 11개다. 유 사무총장은 브리핑 후 기자회견과 만나 국회의원의 용역 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도 받았고 전부 공개하겠다고 의원실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1월 부산서 한·아세안 정상회의...靑 "김정은 초청 협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11월 25~26일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청와대가 이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

서 이같이 밝히며 "이 행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라고 소개했다.

특별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립 측 호이아세안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각 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인 등까지 포함한 전체 참석자 수는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여부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로 정부가 김 위원장에게 초청 의사를 전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를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 초청에 다들 동의한다면 이 문제를 다시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HNT 하나투어

봄에가기 2019 딱 좋은!

여행백서

무안공항 출발 모여라!

광주일보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대 교환권 제공(성인기준)

하나투어 프리미엄트샵 광주총장점

062) 228-1199

중국/홍콩/러시아	일본	동남아/대만
<p>홍콩/마카오 677,000원~ 홍콩/마카오 4월, 5월</p> <p>블라디보스톡 509,000원~ 블라디보스톡 4월, 5월</p>	<p>도쿄 549,000원~ 도쿄 4월</p> <p>오사카 799,000원~ 오사카/교토/나라 4월</p>	<p>보라카이 558,000원~ 보라카이 4월, 5월 라기멜라</p> <p>세부 497,000원~ 세부 5월, 6월 스카이라이프</p> <p>다낭 733,000원~ 다낭/호이안/후에 4월</p>
<p>상해 329,000원~ 상해/항주/주자카 4월, 5월</p> <p>상해/장가계 1,240,000원~ 상해/장가계/웨이하이 4월, 5월</p>	<p>기타큐슈 670,000원~ 기타큐슈/후쿠오카 3월, 4월</p> <p>모이타 737,000원~ 모이타/후쿠오카 3월, 4월</p>	<p>대만 704,000원~ 대만/지우펀/야류 4월</p> <p>방콕 626,000원~ 방콕/파타야 5월, 6월</p> <p>코타키나발루 725,000원~ 코타키나발루 5월, 6월</p>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영일 변경 가능 있습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교통개발기금, 운송/숙박/식음료,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자] 도착비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부속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중로구형)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교호당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2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인턴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 여행 자체 ■ 필수 권고 ■ 여행 금지